



1. 한류가 이렇게 지속될 줄 몰랐어요

학습목표 -(으)ㄴ/는/(으)ㄹ 줄 알다'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내용 -(으)ㄴ/는/(으)ㄹ 줄 알다/모르다



생각해 봅시다



-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 '한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본문

지호 얼마 전에 엄마가 재미있게 보시던 드라마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방영되고 있는데 인기가 대단한가 봐요.

엄마 그래, 나도 들은 적이 있어. 한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걸 한류라고 한다면서?

지나 어? 엄마도 한류를 알고 계시네요.

엄마 그럼! 뉴스를 보니까 외국 팬들이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돌아보는 게 유행이래서 좀 놀랐었지.

지호 처음에는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음식이나 패션에까지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한류가 유행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엄마 그러게 말이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단한 일인 거 같아.

지나 어? 저는 한국 드라마랑 케이팝이 오래 전부터 인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엄마 지나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류라는 말이 생긴 것도 불과 얼마 전이야.

지호 맞아요. 몇 년 전에 '한류의 시작'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한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몰랐어요.**

지나 아, 그렇구나.

도입 질문

- 1) K-pop을 좋아해요?
- 2) 한국 드라마, 영화도 봤어요?
- 3) '한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 4)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 5) 요즘 사람들은 한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문 학습 순서

- 1) 도입 질문을 한다.
- 2) 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 **이해 질문1 (포괄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엄마와 지호는 '한류'를 알고 있습니까?
(답: 알고 있다)
 - 엄마는 뉴스를 보고 왜 놀랐었습니까?
(답: 외국 팬들이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돌아보는 게 유행이래서)
 - 지나는 한류를 언제 알고 있습니까?
(답: 오래 전부터.)
- 5) 질문 4)의 답을 옆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
- 6) 4)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해 질문 2(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한류라는 말은 오래 전에 생긴 말입니까?
(답: 아니요, 얼마 되지 않은 말이다.)
 - 지호는 한류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답: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 엄마는 한류가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까?
(답: 아니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 7) 새 어휘를 설명한다.
- 8)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
- 9)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 (혼자 또는 짝지어서)
- 10)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



내용 이해 질문

- (1) 지호는 한류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O, X)

답 : (X) 지호는 몇 년 전 한류에 관한 프로그램을 볼 때 한류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 (2) 최근 한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O, X)

답 : (O) 최근 한류는 노래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식과 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휘

방영	播放	돌아보다	参观
대단하다	了不起	주도하다	主导
넘다	超过	예전	以前
끌다	拖, 吸引	불과	不过
촬영지	摄影地	지속	持续

대단하다 : 매우 심하다, 몹시 크거나 많다, 출중하게 뛰어나다, 아주 중요하다

- 이번 더위는 정말 대단했지요?
-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 내 동생은 고집이 정말 대단하다.
-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밤에 전화를 해?

끌다 : 남의 관심 따위를 끌리게 하다

- 이 노래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대요.
- 손님을 끄는 비결이 뭐예요?
- 발표할 때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마술사의 마술은 관객들의 흥미를 끌어 모았다.

참고 : 인기가 대단하다

본문에 사용된 '인기가 대단하다'는 두번 째 의미인 '인기가 아주 많다'의 뜻이 사용되었음.

넘다 :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 일정한 시간, 기간을 초과하여

- 저 언덕을 넘으면 시장이 있어요.
- 숙제를 다 하는 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
- 도둑이 담을 넘어 밖으로 도망갔다.

돌아보다 : 고개를 돌려 보다,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하다.

-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 지난 일 년을 돌아본 후에 내년을 준비해야겠어요.
- 돌아보면 우리들의 지난 날은 행복했었던 것 같다.

예전 : 꽤 오래된 지난날

- 우리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 오랜만에 간 고향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 우리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 할머니의 건강은 예전만 못하셔서 걱정입니다.

불과 : (주로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함

- C 학교 학생은 불과 5명이다.
-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 그 사고는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났다.

참고 :

'불과'와 비슷한 말로 '겨우'를 사용할 수 있다.



문법학습

-(으)ㄴ/는/(으)ㄹ 줄 알다/모르다

어떤 방법이나 사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류가 이렇게 지속될 줄 몰랐어요'는 말하는 사람이 한류가 지속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알다/모르다'의 앞 내용이 각각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동사에 '-(으)ㄴ/는/(으)ㄹ 줄'을 씁니다.

- ① 어제 밤 사이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줄 몰랐어요
- ② 나는 민이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
- ③ 비가 안 올 줄 알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 ④ 내가 농담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농담 아니야.

- '-(으)ㄴ/는/(으)ㄹ 줄 알다/모르다'는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이나 어떤 방법, 사실, 내용'을 알고 있다 혹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일이나 어떤 방법, 사실, 내용'이 일어난 시간은 선행절에 나타나고, 말하는 이의 인지 시간은 후행절인 '알다/모르다'에 나타난다.

문장 만들기

'-(으)ㄴ/는/(으)ㄹ 줄 알다/모르다'를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이렇게 시험이 어렵다 -(으)ㄴ/는/(으)ㄹ 줄 알았어요/몰랐어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다 -(으)ㄴ/는/(으)ㄹ 줄 알았어요/몰랐어요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다 -(으)ㄴ/는/(으)ㄹ 줄 알았어요/몰랐어요.
 어렸을 때 키가 작았는데 지금 형보다 키가 크다 -(으)ㄴ/는/(으)ㄹ 줄 알았어요/몰랐어요.
 아마 여기에 안 오다 -(으)ㄴ/는/(으)ㄹ 줄 알고/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거기에 사람이 있다/없다 -(으)ㄴ/는/(으)ㄹ 줄 알다/모르다..

수업에서 동사 제시 순서

- 자다>자는 바람에
- 마시다>마시는 바람에
- 출발하다>출발하는 바람에
- 먹다>먹는 바람에
- *줄다>조는 바람에
- *(바람이) 불다> 부는 바람에

대화 연습하기

1. **지나:** 유리아, 공부해?
유리: 응. 한국어가 이렇게 재미있고 쉬운 줄 몰랐어.
2. **엄마:** 지나야, 너 학교 간 줄 알았는데.
지나: 놓고 간 게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3. **어머니:** 좀 더 빨리 출발할걸 그랬어요.
아버지: 길이 이렇게 막힐 줄 몰랐지.
4. **선생님:** 이게 웬 케이크야? 철수 생일이구나.
민: 진짜야? 오늘이 네 생일인 줄 몰랐어.



1. 앞 내용이 과거에 관한 것이라면 동사에 '-(으)ㄴ 줄'을 쓴다.

- 나는 K-pop 콘서트 표가 다 팔린 줄 몰랐다.
-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은 줄 몰랐다.

2. 앞 내용이 현재에 관한 것이라면 동사에 '는 줄'을 쓰며 '-는 줄로 알다', '-는 줄을 알다'와 '-는 줄을 모르다'로 쓰기도 한다.

-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 나는 그 식당이 늦게까지 문을 여는 줄로 알았다.
- 학생들은 내일 시험을 보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 학생들은 내일이 시험인 줄로만 알고 있다.

3. 어떤 행위의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 A: 김치를 만들 줄 알아요?
- B: 아니요, 김치 만들 줄 몰라요. 한 번도 배우지 않아서요.

- '-는 줄로 알다', '-는 줄을 알다' 또는 '-는 줄을 모르다'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맥에서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다.

이때의 의미는 '-는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예) 나는 그 식당이 늦게까지 문을 여는 줄로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 '-는 줄을 알다'는 사실을 제대로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예: 학생들은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줄을 (이미) 알고 있다.

'-는 줄을 모르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예) 학생들은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줄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 '-는 줄 알다/모르다'는 '-는 방법을 알다/모르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 저는 김치 만들 줄 알아요.

→ 저는 김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알아요. 만들 수 있어요.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예전에 넘어 끌고 지속될 불과

- 1)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아요.
- 2) 불과 10년 전만 해도 K-pop 인기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
- 3)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 4)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 5) 비빔밥은 건강한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해설 : 1)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아요.
 2) 불과 10년 전만 해도 K-pop 인기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
 3)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열풍: fever
 4)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5) 비빔밥은 건강한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 <보기>와 같이 알맞은 문장을 쓰십시오.

<보기>

가: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나: 네, (이렇다, 재미있다)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 1) 가: 유리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나: 저도 유리가 (중국사람이다)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해설 : 두 사람은 유리가 중국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사실은 유리는 한국 사람이다.

- 2) 가: 민이는 친구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
 나: 맞아요. 저도 민이한테 (친구, 많다) 친구가 많은 줄 몰랐어요.

해설 : 두 사람은 민이가 친구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이와 반대였다.

- 3) 가: 영화가 너무 슬퍼서 너무 많이 울었네요.
 나: 이렇게 슬픈 영화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영화가 (재미있다)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해설 : 두 사람은 무척 슬픈 영화라는 것을 모르고 영화를 봤다.

1. 어휘 연습

- 1) '예전에'의 의미를 잘 알고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2) '불과' 다음에 수량명사와 오는 것을 확인한다.
- 3) 지속되다= 계속되다
- 4) '-을/를 넘어'의 활용형에 주의한다.
- 5) '-을/를 끌고' 활용형에 주의한다.

2. 문법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으)ㄴ/는/(으)ㄹ 줄 알다/모르다]**
- 사실을 알다/모르다
- 제시된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한다.
 예) 이렇다, 재미있다
 →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 대화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
- -(은)ㄴ/는/(으)ㄹ 등의 시제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
- 줄 알다/모르다의 활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 학습자가 문장을 직접 연결할 때는 학습자 급에 알맞은 문형과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남자의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1) (듣기 문제임.)

남 : (아파하며) 아! 이렇게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해요?

여 : _____

- ① 죄송해요. 발이 아픈 줄 몰랐어요.
- ②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 ③ 미안합니다. 제 발이 밟힌 줄 알았어요.

해설 : 남자가 발이 밟힌 상황이다.

2) 남 : 아까부터 뭘 찾고 있어요?

여 : _____

- ① 당신이 나를 찾는 줄 알았어요.
- ②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는 줄 알았어요.
- ③ **지갑을 찾아요. 가방 안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해설 : 남자는 상대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3) 남 : 미영이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던데.

여 : _____

- ① **너하고 미영이가 잘 맞을 줄 몰랐어.**
- ② 미영이가 그렇게 말이 없는 줄 몰랐어.
- ③ 네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해서 재미있었나 봐.

해설 : 남자는 미영이와 이야기하기 전에 말이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3. 듣기 연습

-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
- 먼저 남자의 말을 듣고 상황을 말해볼 수 있게 한다. 다음에 보기 중에서 가장 알맞은 응답을 고르도록 한다.
- 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예)

A. 아! 이렇게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해요

B.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밟은 줄 몰랐어요.

B'. 제 발 밑에 다른 사람의 발이 있는 줄 몰랐어요.

* 고급 학습자의 경우 '알다/모르다'의 서술어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거든요/몰랐는데요/몰라서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모르고 실수했네요. / 등

과제

사람들은 누구나 착각하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 알고 실수한 적을 생각해 보고 그때의 경험을 써 봅시다.** 단,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접 경험한 일을 써야 한다.
- '-(으)ㄴ/는/(으)ㄹ 줄 알다/모르다'를 사용해야 한다.
- 문어체('다, ㄴ/는다')로 써야 한다.
- 400~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가끔 이 세상에 나와 닮은 사람이 어딘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지호 오빠가 몇 걸음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지호 오빠를 불렀는데 오빠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오빠 뒤를 쫓아가서 등을 세게 치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호 오빠가 아니었다. 키와 체격, 머리 모양과 옷차림까지 비슷해서 나는 정말 지호 오빠인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하 생략>

도입 질문

- 과거에 어떤 일을 잘못 알고 실수한 일을 생각해 본다.
- 그때 무슨 실수를 했는가?
- 나는 왜 실수를 했는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 그때 나의 기분은 어땠는가?
- 상대방은 뭐라고 했는가?
- 나는 어떻게 사과했는가?
- 실수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는가?

작문 지도

-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직접 경험한 일, 문형, 문체, 길이)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 (처음-중간-끝)
-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